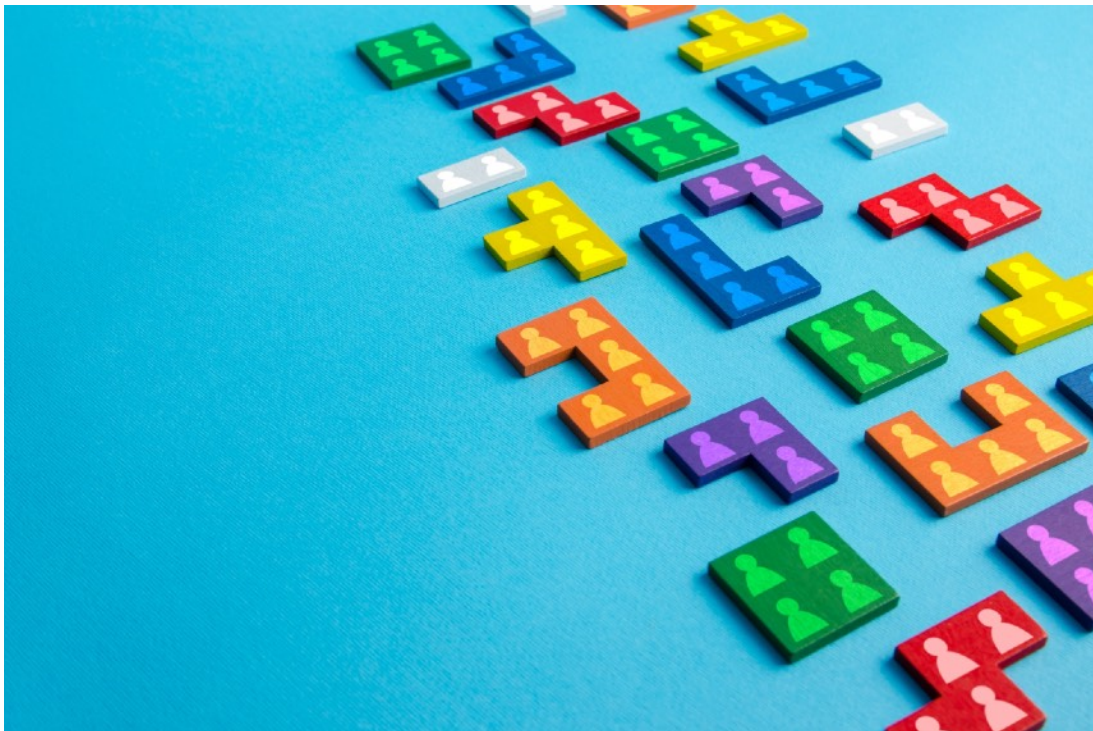


## 주요 내용

1. [저출산의 극복, 개신교가 앞장서야!(출산 관련 종교인 인식조사)]  
총 자녀 수(현재 + 계획), 종교인/무종교인 통틀어 개신교인이 1위!
2. 최근 언론보도 통계
  - 1) 2021 한국선교현황 조사
  - 2)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 수와 사회경제적 비용
3. [넘버즈 칼럼] With코로나 시대, 소그룹 사역이 대안이다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 저출산의 극복, 개신교가 앞장서야!

- 총 자녀 수(현재 + 계획), 종교인/무종교인 통틀어 개신교인이 1위.

교인이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노쇠화되고 있다. 교회에서 아동·청소년보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분들이 더 많은 게 요즘 교회 풍경이다. 교인 감소와 고령화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가장 기본적인 원인은 출산율 감소이다.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자녀의 수를 나타내는 합계 출산율은 1980년도 2.82명이었다. 이것이 10년 후인 1990년도에는 1.57명으로 급격하게 줄어 들었고 작년 2021년에는 0.81명까지 줄어들었다. 이처럼 인구가 줄어드니 교인도 줄어들고, 전도 대상자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최근 기독교 방송 CTS가 출산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실시하여 발표하였는데, 그 결과 개신교인이 타종교인/무종교인 통틀어 자녀수(현재+계획)가 가장 많았고, 개신교 미혼자들의 향후 계획 자녀 수도 가장 높았다. 또한 개신교인이 전체 그룹 중에서 가정중심의 가치관이 가장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독교는 가정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는 종교이다. 가정은 기독교의 핵심적 존재이다. 이는 현재 국가적인 난제인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단초를 준다. 크리스천 가정을 바르게 세우는 작업을 통해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기대하는 이유다.

넘버스 136호에서는 이번 CTS의 조사결과를 자세하게 풀어 종교와 출산의 관계를 파악하고, 교회가 이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출산에 관한 종교인별 인식조사

본 조사는 그동안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던 종교인별 출산 실태와 인식을 표본조사(Sample survey)라는 도구를 통해 규명해 보고자 기획되었다. 일반적으로 전국조사의 경우 1,000명을 대상으로 행해지고 있는 바, 본 조사의 경우 종교별로 충분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또한 보다 높은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그보다 많은 총 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특히 개신교인들의 경우 추가 분석을 위해 1,000명을 할당하였다.

구체적인 조사 개요는 다음과 같다.

### 조사 개요

구분	내용
• 조사 대상	만 20~49세 남녀
• 조사 지역	전 국
• 조사 방법	온라인패널 대상 온라인 조사
• 표본 규모	총 3,000명 (유효 표본) - 개신교 1,000명, 가톨릭 500명, 불교 500명, 종교없음 1,000명
• 표본 추출	• 종교별 표본 추출은 유의할당 추출(Purposive Quota Sampling) • 각 종교 내에서 표본 추출은 지역/성/연령별 비례할당 추출 (2015 인구센서스 종교인구 기준)
• 조사 기간	2021년 12월 27일 ~ 2022년 1월 10일 (15일간)
• 조사 의뢰 기관	CTS 기독교텔레비전
• 조사 수행 기관	(주) 지앤컴리서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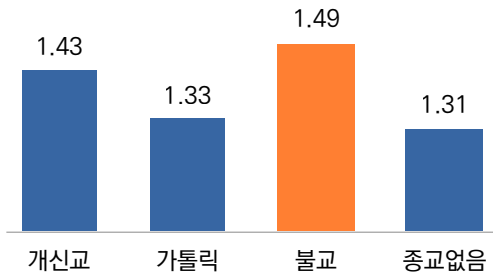
# 01

## 현재 자녀 수, 불교 1위

## 향후 계획 자녀 수, 가톨릭과 개신교가 1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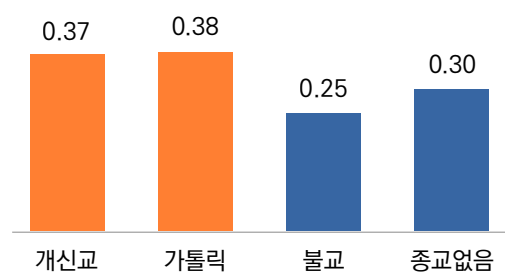
- ▶ 각 종교인별로 현재 자녀 수를 질문한 결과, 불교가 1.49명으로 가장 많았고 개신교는 1.43명으로 두 번째였다.
- ▶ 그런데 향후 계획하고 있는 자녀 수는 가톨릭(0.38명), 개신교(0.37명)가 1위이고, 현 자녀 수 1위였던 불교는 0.25명으로 3개 종교 가운데 가장 적었다.

[그림] 현 자녀 수 (기혼자, 명)



\*P < 0.05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그림] 향후 계획 자녀 수(기혼자,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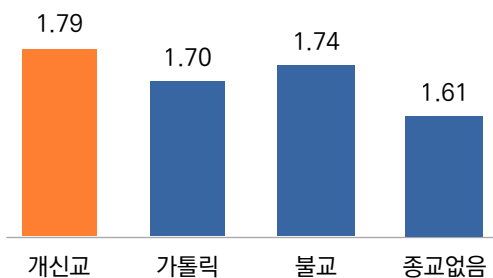


\*P < 0.05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 ◎ 총 자녀 수와 이상적 자녀 수, 개신교가 1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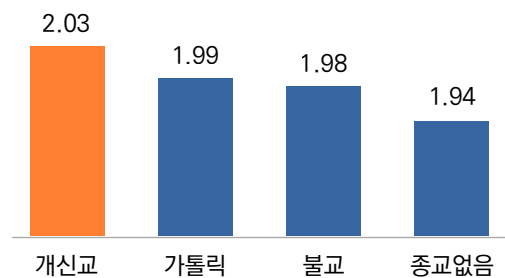
- ▶ 현 자녀 수와 향후 계획 자녀 수를 합한 총 자녀 수의 경우 개신교인이 1.79명으로 타종교인/무종교인 통틀어 가장 많았다.
- ▶ 이상적 자녀 수 역시 개신교가 2.03명으로 다른 종교보다 많았다.
- ▶ 전체적으로 총 자녀 수, 이상적 자녀 수 모두 무종교인이 가장 낮았는데, 이는 출산율이 종교와 상관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들이다.
- ▶ 여기서 우리는 두가지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첫째는 왜 개신교가 총 자녀 수와 이상적 자녀 수에서 가장 많은 것일까? 둘째는 모든 종교인에게서 왜 이상적 자녀 수보다 현실의 자녀 수가 적은 것일까?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다음에서 살펴본다.

[그림] 총 자녀 수 (현 자녀 + 향후 계획 자녀, 명)



\*P < 0.05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그림] 이상적 자녀 수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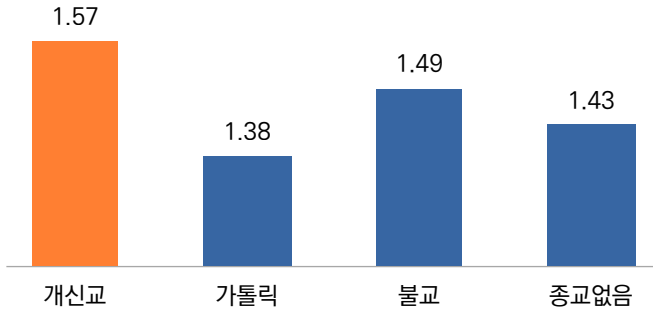
\*P < 0.05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 02

## 미혼자의 향후 계획 자녀 수, 개신교가 1위!

- ▶ 미혼자들에게 향후 몇 명의 자녀를 갖고 싶은지 질문한 결과, 개신교가 1.57명으로 가장 많았고, 불교 1.49명, 종교없음 1.43명, 가톨릭 1.38명이 뒤를 이었다.
- ▶ 여기서도 왜 개신교 미혼자들의 계획 자녀 수가 가장 많은가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림] 미혼자의 향후 계획 자녀 수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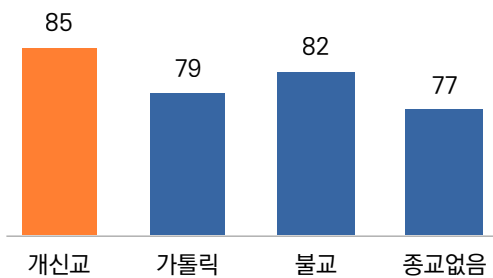
\*개신교-가톨릭, 개신교-종교없음 : P < 0.05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 03

## 개신교 자녀 수가 가장 많은 이유, 자녀 필요성을 많이 느끼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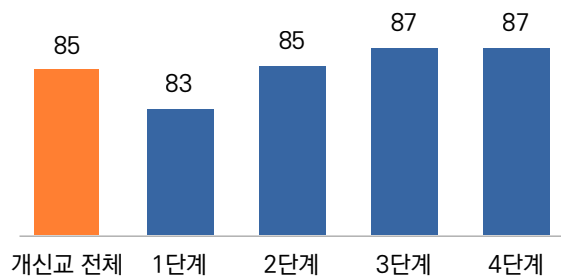
- ▶ 개신교인이 자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85%로 모든 종교인 중 가장 높고, 다른 종교인들도 무종교인보다 높아 자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종교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 또한 개신교인을 신앙 단계별로 나눠서 보면 신앙 단계가 올라갈수록 자녀 필요성도 올라가는 경향이 보인다.
- ▶ 즉 개신교 신앙이 자녀가 필요하다는 인식 형성에 크게 영향을 미쳤고, 그러한 인식이 총 자녀 수를 높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림] 자녀 필요성 ('다소+매우' 필요하다, %)



\*P < 0.05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그림] 자녀 필요성 (개신교인 신앙단계별, %)\*\*



\*P < 0.05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이 신앙 단계는 웨스터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김선일 교수가 개발한 것으로, 이번 조사에 활용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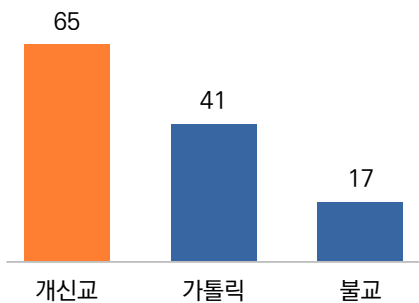
- 1단계 :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내 종교는 아직까지 삶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 2단계 : 나는 예수님을 믿으며, 그 분을 알기 위해 여러가지 일을 하고 있다.
- 3단계 : 나는 그리스도와 가까이 있으며, 거의 매일 그 분의 인도하심에 의지한다.
- 4단계 : 하나님은 내 삶의 전부이며, 나는 그 분으로 충분하다. 나의 모든 일은 그리스도를 드러낸다.

# 04

## 개신교인이 자녀 필요성을 더 많이 느끼는 이유, ① 개신교가 결혼과 가정을 중요시하는 종교이기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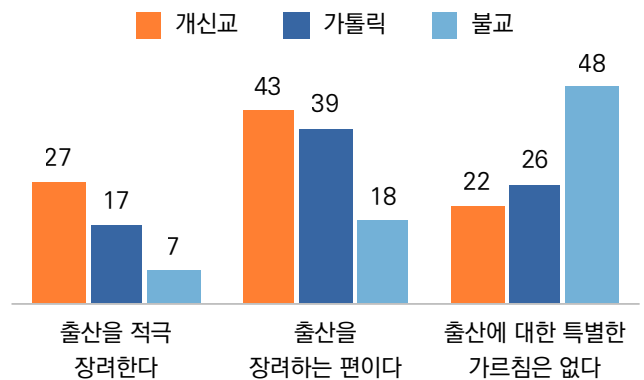
- ▶ 그렇다면 개신교인의 자녀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어떻게 형성된 것일까?
- ▶ 각 종교인에게 자기 종교가 결혼과 출산을 강조하는지 질문했을 때, 개신교인의 65%는 '그렇다'고 응답해서 개신교가 결혼과 출산을 가장 강조하는 종교로 나타났다.
- ▶ 또한 종교별로 출산을 가장 장려하는 종교 역시 개신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 즉 개신교는 본질적으로 결혼과 출산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종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종교별 결혼/출산 강조 정도 ('어느정도+매우' 강조한다, %)



\*P < 0.05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그림] 종교별 출산에 대한 장려 정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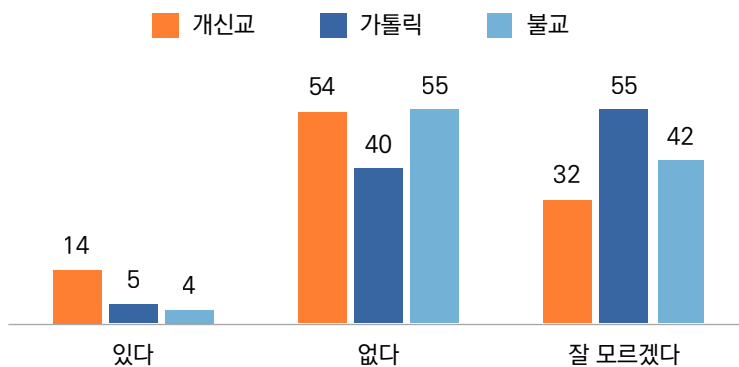


\*P < 0.05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 ② 교회에서 출산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활동을 하기 때문!

- ▶ 각 종교인에게 자기 종교에서 출산 증가를 위한 활동이 있었는지 질문했을 때, 개신교인의 14%가 '있다'고 응답했다.
- ▶ 개신교는 자녀의 중요성을 강조만 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성도들이 이를 의식화하도록 활동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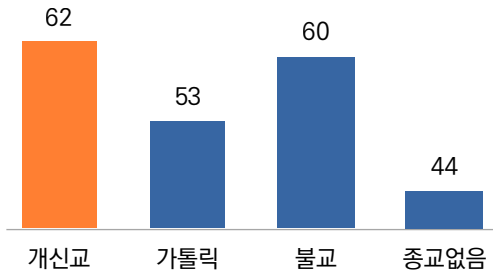
[그림] 종교별 출산 증가를 위한 활동 여부 (%)



### ③ 부모가 결혼/가정의 중요성 가르치기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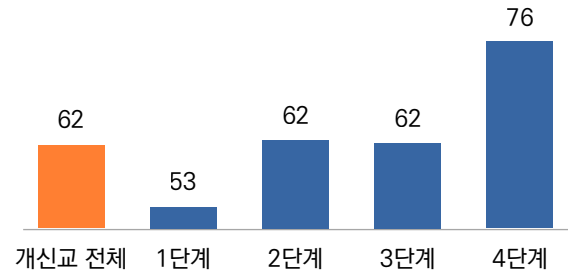
- ▶ 각 종교인에게 평소 결혼과 가정의 중요성을 자녀에게 가르치는지 질문했을 때 개신교인의 62%는 '가르친다고' 응답해 가장 높았다. 반면 무종교인은 44%로 가장 낮았다.
- ▶ 개신교인들 가운데서도 신앙단계가 높을수록 가정에서 결혼과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 즉 가정과 자녀의 중요성에 대한 가르침이 교회에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전수되고 있는 것이다.

[그림] 나의 종교가 결혼과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 가르치는 정도 ('가끔+매우 자주' 가르침, %)\*\*



\*P < 0.05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4점 척도 질문임

[그림] 나는 평소 결혼과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 자녀에게 가르치고 있다 (자녀있는 개신교인, 신앙단계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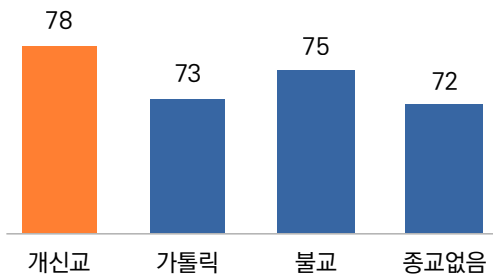
\*P < 0.05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 05

### 저출산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개신교 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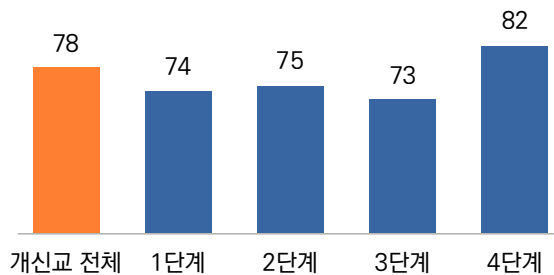
- ▶ 저출산이 문제라는 인식은 막연한 인식에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삶에 구체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불안감도 주고 있다. 특히 개신교인에게서 그러한 인식이 높았다.(78%)
- ▶ 개신교인의 신앙단계가 4단계가 되면 이러한 불안감이 급증하고 있다.
- ▶ 원론적 인식과 구체적 불안감이 결합되어서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개신교인이 크게 느끼게 된 것이다.

[그림] 저출산이 삶에 미치는 영향 정도 ('다소+매우' 영향있다, %)\*\*



\*P < 0.05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4점 척도 질문임

[그림] 저출산이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소+매우, 개신교인, 신앙단계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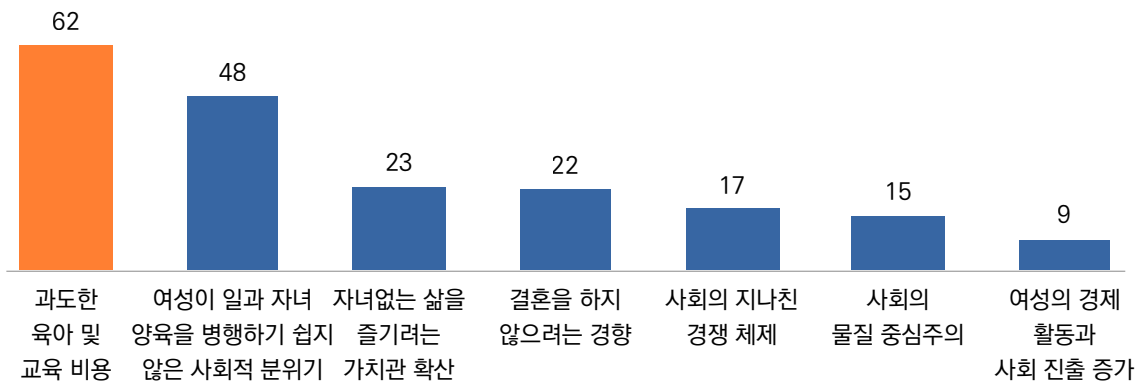
\*P < 0.05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 06

## 저출산의 원인, 사회적 제약요인과 무자녀/비혼 등 가치관의 문제!

- ▶ 그렇다면 저출산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가장 먼저 현실적 상황을 들 수 있다. '과도한 육아 및 교육 비용'(62%), '자녀 양육과 직장 양립의 어려움'(48%), '사회의 지나친 경쟁 체제'(17%)과 같은 현실적 제약요인이 저출산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 ▶ 그런데 이에 못지않게, 아니 좀 더 심층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가치관의 문제이다. '자녀없는 삶을 즐기려는 가치관 확산'(23%),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22%), '사회의 물질 중심주의'(15%) 등의 변화된 가치관이 출산을 기피하게 만든다고 응답했다.
- ▶ 그러므로 저출산에 대처하려면 사회적 조건의 개선과 함께 인생관/가치관의 전환이 있어야만 한다.

[그림] 저출산 원인 (중복응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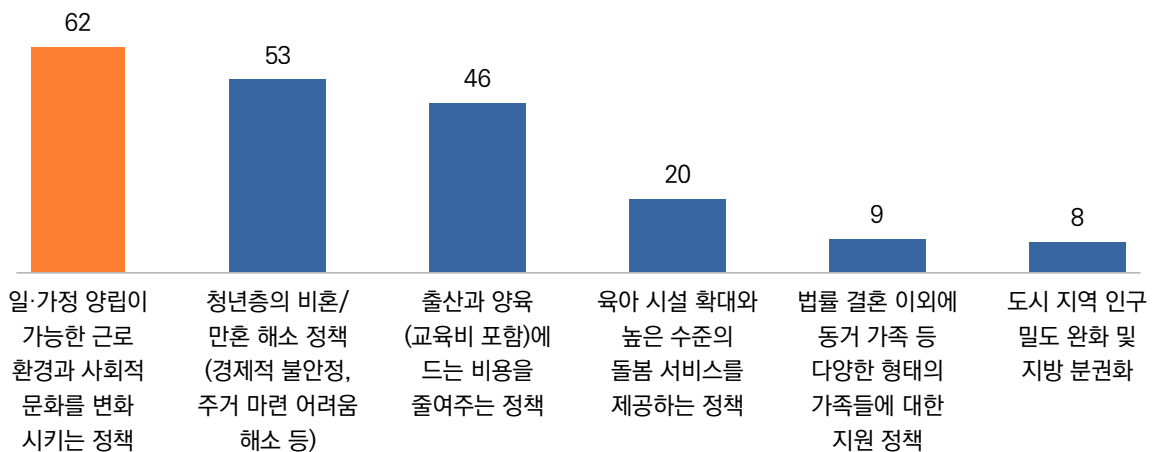


# 07

## 저출산 대책, '일과 가정 양립'과 '양육비 저부담'!

- ▶ 저출산에 대한 대책으로 가장 많이 언급한 것은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환경과 문화 조성'(62%)이었다.
- ▶ 한편 '육아시설 확대와 높은 수준의 돌봄 서비스 제공'(20%)도 '일·가정의 양립'을 가능하게 하는 구체적인 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출산과 양육 비용 저부담 정책'(46%)도 저출산 대책에서 중요하게 언급됐다.

[그림] 저출산 완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 (중복응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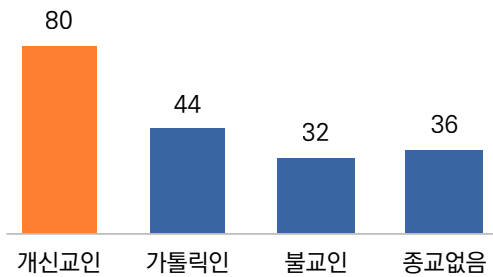




## 교회 운영 돌봄기관에 대한 이용, 타 종교인도 상당수 의향을 보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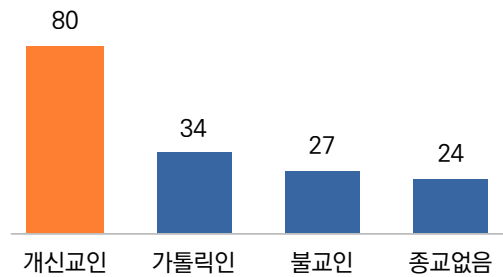
- ▶ 일과 육아의 양립을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로 꼽히는 것이 돌봄 서비스이다. 교회 가운데는 어린이집, 공부방, 지역아동센터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회가 많은데 이에 대해서는 비개신교인도 30~40%의 호감을 표시했다.
- ▶ 뿐만 아니라 교회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겠다는 의향도 비개신교인 사이에 20~30% 수준에서 형성되어 있다.

[그림] 교회 운영 돌봄기관 호감도 ('약간+매우' 호감, %)



\*P < 0.05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그림] 자녀의 교회 운영 돌봄기관 이용 의향 ('약간+매우' 의향있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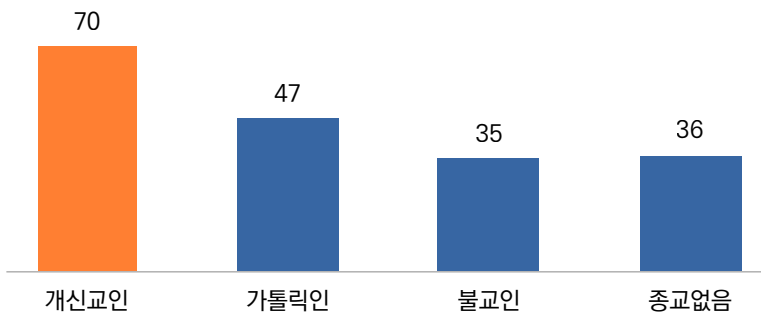
\*P < 0.05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교회의 돌봄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는, <목회데이터연구소, 「넘버스」 제133호 '아동 돌봄 실태 및 교회의 역할'(2022. 3. 1)> 참조할 것

### ◎ '교회운영 돌봄기관이 출산율 증가에 도움이 된다', 비개신교인도 동의!

- ▶ 교회가 돌봄기관을 운영하는 것이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개신교인이 70%로 가장 높았다. 이는 같은 개신교인으로 당연한 응답이라고 할 수 있다.
- ▶ 그런데 비개신교인도 이에 동의하는 비율이 30~40%대로 형성되어 있다. 즉 비개신교인도 개신교의 돌봄 서비스가 출산율 증가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림] 교회가 돌봄기관을 운영하는 것이 출산율 증가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 ('약간+매우' 도움됨, %)



\*P < 0.05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한국 사회를 기초부터 흔들 수 있는 메가톤급 이슈는 인구 문제이다. 지금이야 아이를 더 낳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불과 40~5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산아제한 정책을 강하게 펼만큼 인구의 과잉이 문제였던 나라였다. 인구는 늘어나는데 국가 생산력은 낮아서 대다수 인구가 빈곤에 쪼들리고 경제 발전에 집중해야 할 자원을 마련하지 못했던 시절이었다. 절대 인구가 많아서 문제가 아니라 경제력에 비해 상대적 인구가 많아서 문제였다.

인구가 많은 것은 한국 교회에는 축복이었다. 산업화를 통해 도시로 도시로 밀려 들어온 사람들은 교회로 몰려 들었다. 도시의 고난한 삶을 겪는 사람들에게 교회는 안식처였다. 그들로 인하여 교회는 유례없는 부흥을 이루었다.

우리나라 인구는 2020년 5,184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인구 감소는 사회에도 교회에도 위기를 불러온다. 생산 가능인구가 줄어들면서 이미 우리나라 중소기업 공장은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가동할 수 없게 된지가 오래 되었다. 인구 감소는 소비 위축을 불러와서 내수 시장이 붕괴되면 우리나라 경제 체제의 기반이 통째로 흔들리는 경제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농촌 교회는 젊은이를 찾기 힘들게 되었고 교회 안에 아동·청소년이 없어서 교회학교도 운영할 수 없는 교회가 속출하고 있다. 예장통합 서울강동노회의 경우 서울권 교회 들임에도 불구하고 교회학교 조직 비율이 60.8%로 10개 교회 가운데 4개 교회에 교회학교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충격을 주었다.<sup>1)</sup> 교인 50명 이하의 소형교회 목회자 4명 가운데 3명은 교회 유지를 걱정한 경험이 있을 정도로 위기에 봉착해 있다.<sup>2)</sup>

인구 증가의 위기를 피해하려면 아이가 많이 태어나야 하는데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합계 출산율(가임여성 즉 15~49세 여성이 평생동안 낳을 것이라고 예측되는 자녀 수)이 2020년 0.84명에서 2021년에는 0.81명으로 떨어졌다. 현재 인구를 유지하려면 합계 출산율이 최소한 2.1명이 되어야 하는데, 그 절반 이하의 합계 출산율은 인구 유지조차 기대하기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기독교는 가정을 중요시하는 종교이다. 가정은 하나님이 교회와 함께 직접 만드신 기관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구체적으로 재현되는 곳이 가정이고 교회이다. 그러므로 가정과 교회는 기독교에서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 이번 「넘버즈」 136호에서는 개신교인은 출산에서 다른 종교인들과 다른 뚜렷한 특징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자녀 수에서 가톨릭, 불교보다 더 많았으며 가정의 중요성, 자녀의 필요성에서도 다른 종교인들보다 더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개신교인이 이러한 태도를 갖게 된 것은 교회와 가정에서 가정과 자녀의 중요성에 대한 가르침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조건 때문에 기대보다 자녀를 많이 낳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적 조건을 타개할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돌봄 서비스이다. 정부에서도 일과 가정,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데, 교회는 이미 많은 교회가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로 국가적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 교회의 공간과 인력을 활용한다면 개신교인 뿐만 아니라 비개신교인까지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다.<sup>3)</sup>

이와 함께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가정으로 만들어야 할 책임이 또한 부모세대에게 있다. 자녀들이 온전한 사랑을 받는 가정, 한 인격체로서 존중받으며 부모와 쌍방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가정, 힘들고 지칠 때 쉼과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가정에서 자랄 때 자녀들은 가정의 소중함을 체득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부모가 될 때쯤이면 자기가 겪은 소중한 가정을 자기 자녀도 갖도록 하지 않을까? 크리스천 가정을 바로 세우는 것은 개인 단위에서 출산을 장려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저출산의 극복, 개신교가 앞장서야 할 때이다!

1) 한국기독교공보, '서울강동노회, 교회 10곳 중 4곳은 교회학교 없어', 2021.9.24 (<http://m.pckworld.com/article.php?aid=9072117904&page=1>)

2) 목회데이터연구소, 「넘버즈」 116호(한국교회 소형교회 위기), 2021.10.22.

3) 아동 돌봄 실태와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는 「넘버즈」 133호, 2022.3.1. 참조할 것

1.[2021 한국선교현황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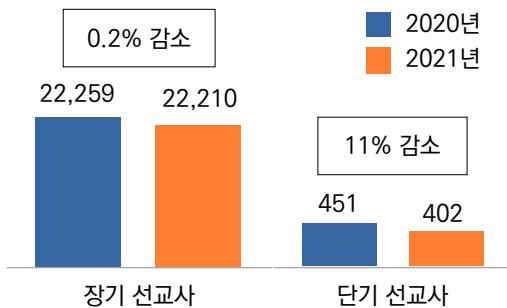
2.[흡연으로 인한 사망자 수와 사회경제적 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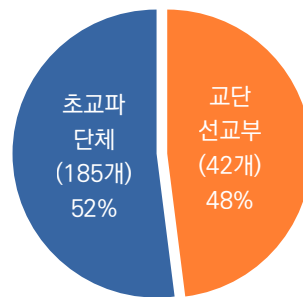
## 우리나라가 파송한 해외 선교사(장/단기), 2021년 말 기준 167개국, 22,612명!

- ▶ 한국세계선교협의회/한국선교연구원(한국선교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2021 한국선교현황'에 따르면 2021년 한국의 해외 선교사는 167개국에서 장기선교사\*\* 22,210명, 단기선교사(선교단체 소속) 402명으로 총 22,612명이 사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2020년 통계와 단순 비교했을 때 장기 선교사는 0.2% 감소하였고, 단기 선교사는 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 파송 단체 유형을 보면, 교단(42개) 소속 48%, 초교파 선교단체(185개) 소속 52%로 선교단체 파송이 약간 더 많았다.

[그림] 2020~2021 한국 선교사 현황 (명)



[그림] 선교 단체별 선교사 파송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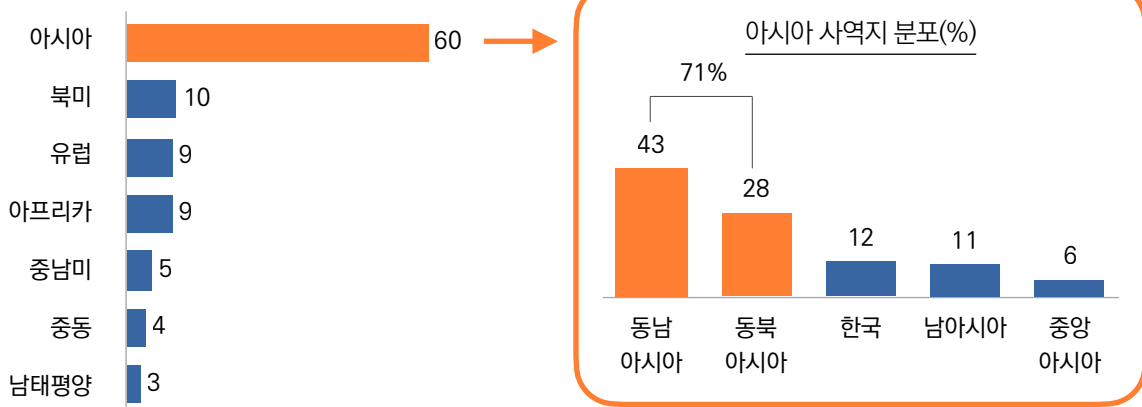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한국선교연구원(KRIM), 2021 한국선교현황, 2022.02.23., (227개 선교단체·교단, 2021.11.09.~12.30., 온라인 및 전화조사) / 2020 한국선교현황, 2021.02.26., (233개 선교단체·교단, 2020.11.09.~12.28., 온라인 및 전화조사)

\*\*장기 선교사는 타문화권(타문화권 선교에 직간접 기여)에서 2년 이상의 계획으로 선교사역을 하고 있는 한국인(한국 국적)으로서, 한국 내에 분명한 파송 단체 혹은 후원 주체(개교회 파송의 제외)가 있으며, 선교사로 모임을 하는 풀타임 사역자를 말함.

### ◎ 선교지 중 아시아 선교가 60% 차지하며, 그 중 동남 아시아가 가장 많아!

- ▶ 선교사들의 사역 대상국가를 대륙별로 봤을 때 아시아가 절반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고(60%), 아시아 중에서는 동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 선교 비중이 71%였다.
- ▶ 아시아 외 사역 대상국가로는 북미 10%, 유럽 9%, 아프리카 9%, 중남미 5% 순이었다.

[그림] 대륙별 사역 대상국가 분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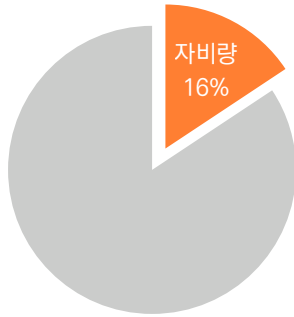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한국선교연구원(KRIM), 2021 한국선교현황, 2022.02.23., (227개 선교단체·교단, 2021.11.09.~12.30., 온라인 및 전화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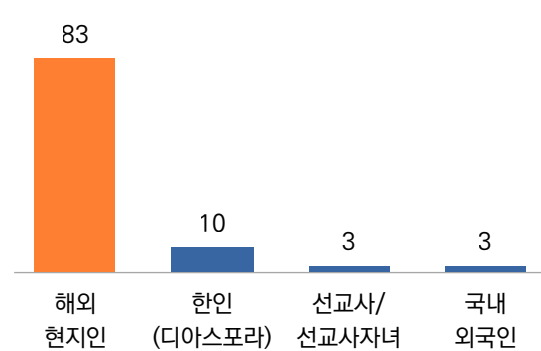
## ◎ 자비량 선교사, 전체의 16%

- ▶ 주요 수입원을 모금과 후원에 의지하지 않는 자비량 선교사는 전체 선교사의 16%로 집계됐다.
- ▶ 장기선교사의 주요 사역 대상은 현지인이 83%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그 다음 한인(디아스포라) 10%, 선교사/선교사자녀 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 한편, 장기 선교사 연령을 보면 50대 선교사가 3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0대 29%, 60대 24% 순이었는데, 50대 이상의 비율이 3명 중 2명(63%) 가까이 되었다.

[그림] 자비량 선교사 비율



[그림] 장기선교사 주요 사역 대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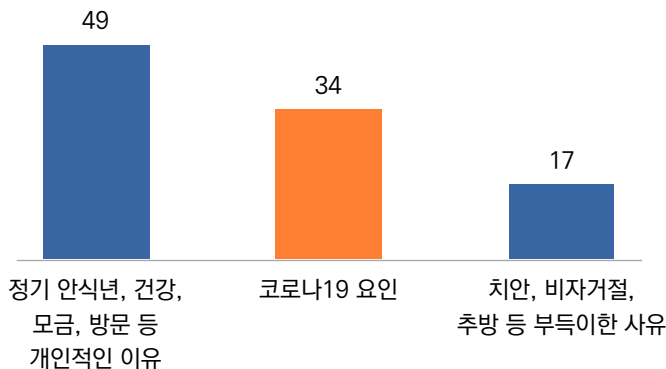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한국선교연구원(KRIM), 2021 한국선교현황, 2022.02.23., (227개 선교단체·교단, 2021.11.09.~12.30., 온라인 및 전화조사)

## ◎ 임시 귀국한 장기 선교사 3명 중 1명, '코로나19 요인'으로 귀국!

- ▶ 2021년 '임시 귀국 장기 선교사'는 응답기준(152개 단체)으로 2,707명으로 집계됐는데, 귀국 요인으로는 코로나 요인이 34%로 3명 중 1명꼴이었으며, '정기 안식년, 건강, 모금, 방문 등 기타 개인적인 이유'가 49%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치안, 비자거절, 추방 등의 부득이한 사유' 17%였다. 코로나19가 선교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음을 보여주는 수치이다.

[그림] 임시 귀국 장기 선교사 수 및 귀국 요인 (2,707명 대상, %)



\*자료 출처 :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한국선교연구원(KRIM), 2021 한국선교현황, 2022.02.23., (227개 선교단체·교단, 2021.11.09.~12.30., 온라인 및 전화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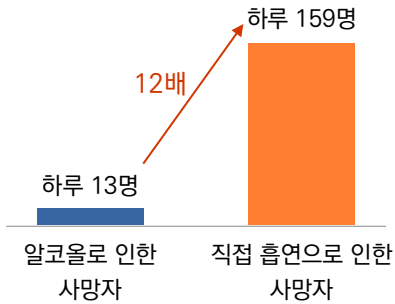
\*\*임시 귀국 장기 선교사는 귀국하여 2021년 국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선교사를 말하며, 국내에 정착하여 장기 사역을 시작한 선교사는 제외함.



## 직접 흡연으로 인한 사망 하루 159명, 알코올 관련 사망자 대비 12배 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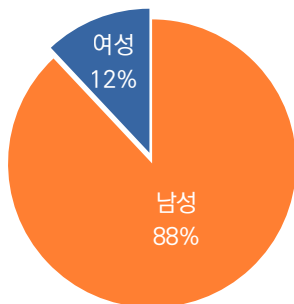
- ▶ 최근 질병관리청과 서울대연구팀이 발표한 ‘흡연 피해 연구기반 구축 및 사회경제적 부담 측정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직접 흡연 기준 추정 사망자’가 2019년 총 58,036명으로 하루 평균 159명꼴로 나타났다.
- ▶ 이는 2019 하루 평균 알코올로 13명이 목숨을 잃는 것\*\*과 비교했을 때 12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 알코올이 전 연령대를 조사한 것과는 달리 흡연은 30대 이상으로 한정·조사하였기에 실제 차이는 이보다도 더 클 것으로 예측된다.
- ▶ 전체 사망자(30세 이상)를 성별로 구분하면 남성 88%, 여성 12%로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 ▶ 흡연으로 인한 사망 위험도는 현재 흡연자가 비흡연자보다 남성은 1.7배, 여성은 1.8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림]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 수 (1일 평균, 알코올 사망자 비교)



[그림] 흡연자 사망 통계 (2019년 기준/ 30세 이상 조사)

직접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 추정 (성별)



현재 흡연자 흡연으로 인한 사망 위험도 (성별)

남성 : 비흡연자 대비 1.7배

여성 : 비흡연자 대비 1.8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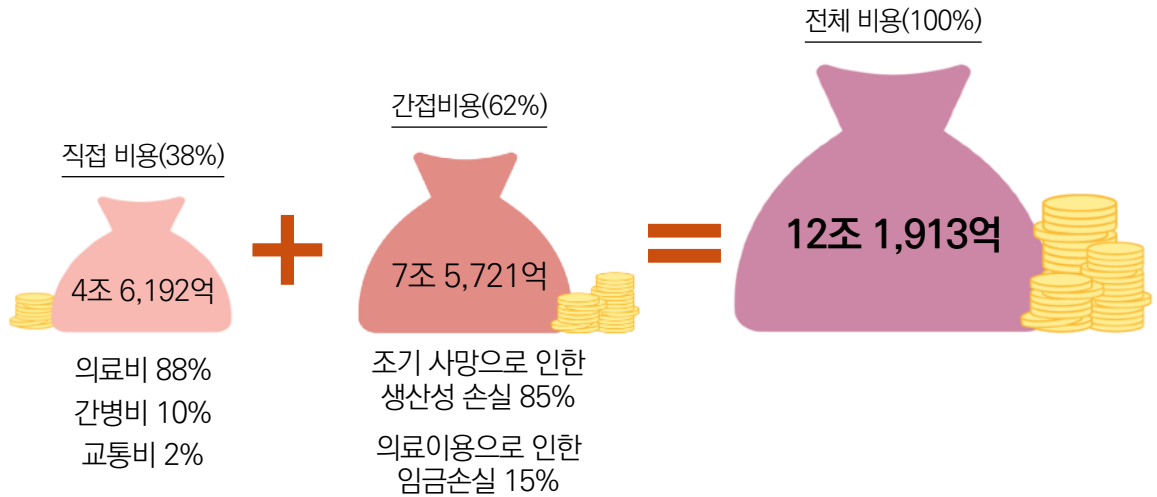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질병관리청/서울대연구팀, 흡연 피해 연구기반 구축 및 사회경제적 부담 측정 연구, 2022.03.14.,(국민건강보험공단 가족 DB 등 활용, 2019.03.19. ~ 2021.12.31.),

\*\*자료 출처 : 통계청, 2019년 사망원인통계 결과, 2020.09.22

## ◎ 흡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12조 원 넘어!

- ▶ 흡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추산한 결과 12조 1,913억 원이었는데 이중 직접비용은 38%, 간접비용은 62%를 차지했다.
- ▶ 직접비용을 세분화하면 '의료비'가 88%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간병비' 10%, '교통비' 2%였다.
- ▶ 간접비용은 조기사망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과 입원·외래진료 등 의료이용으로 인한 '임금 손실'로 구분했다. 조기사망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은 6조 4,606억 원(85%)으로 앞선 직접비 총액(4조 6,192억원)을 훨씬 넘어선 금액이었다. 의료이용으로 인한 임금 손실은 1조 1,115억 원(15%)으로 추산됐다.

[그림] 흡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2019년 기준, 원)



\*자료 출처 : 질병관리청/서울대연구팀, 흡연 폐해 연구기반 구축 및 사회경제적 부담 측정 연구, 2022.03.14.,(국민건강보험공단 가족 DB 등 활용, 2019.03.19. ~ 2021.12.31.)

# With코로나 시대, 소그룹 사역이 대안이다

이상화 목사

(서현교회 담임, 한국소그룹목회연구원 대표)

교회는 본질적으로 성도들의 거룩한 교제로서의 공동체(Communio Sanctorum)다. 그러나 장기화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교회는 법적으로 이 본질을 금지당하고 있다. 자유로웠던 컨택트(Contact)상황이 언택트(Untact)로 일컬어지는 비대면 상황으로 변하고, 대안으로 제시된 인터넷 온택트(Ontact)에서 교회는 예배와 교제, 양육과 봉사 그리고 복음전도 사역의 불꽃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 노심초사하며 하루하루를 버텨왔다. 다행히 백신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작년 11월 1일에 'With코로나'로의 대전환과 일상회복이 단계적으로 시작되어 희망을 품었지만 변이종 출현과 그로 인한 감염확산은 또 다시 상황을 원점으로 돌려놓았다. 팬데믹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아무리 'With코로나'가 선언된다고 하더라도 코로나19 이전처럼 대그룹으로 모이는 대면 집회가 완전 복원될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말라고 전언한다. 결국 팬데믹의 고통스러운 상황은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소외되는 사람은 더욱 소외되고, 비대면을 전제한 온택트(Ontact) 산업의 영역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히브리서는 함께 모이기를 포기한 그리스도인들은 사랑과 선한 행위를 하기 위해 서로를 자극하고 격려하는 능력과 기회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결국 거룩한 사귄 교제로서의 코이노니아(Koinonia)가 있는 성경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With코로나' 상황 속에서 대안적인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과연 어떤 대안을 모색해야 할까?

사도행전 2:42-47을 보면 오순절에 성령의 권능을 통해 회복된 예루살렘교회는 모일 때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친밀한 교제를 했고, 집중력있는 기도를 했다(42절 참조). 부요한 그리스도인은 부족하고 빈곤한 사람들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필요한 것을 나누며 섬겼고, 영육 간에 힘든 이들은 자존감이 훼손당하지 않으면서 교회가 진행하는 모임에 가기만 하면 필요를 공급받는 유무상통의 은혜가 있는 공동체였다(44-45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모임의 형태다. 이들은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면서 회당을 빌려 대그룹으로 모이는 것과 동시에 한 성도가 개방한 집에서도 모이는 소그룹을 균형 있게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교회는 이웃들에게 칭찬받는 공동체로 자리매김을 했고, 날마다 새로운 영혼들이 영적 공동체로 들어오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다(47절). 여기서 얻는 분명한 교훈이 있다. 아무리 팬데믹과 같은 어려운 상황으로 대그룹으로 모여서 진행하는 사역이 여의치 못하다고 하더라도 소그룹 모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역동적으로 모일 수 있는 소그룹 목회적 환경과 소그룹 리더십을 배양한다면 끊임없이 복음의 확장성을 꾀할 수 있다는 성경적 원리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With코로나'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 사회는 사람들 사이의 연락은 점점 편리해졌는데 인간소외는 더 심각해져 가는 세상이 되고 말았다. 정신적 감기인 우울증환자들의 증가, 술 소비량의 증가와 같은 사회적 병리현상은 더 크게 심화될 것이 분명하다. 기독청년 4명 중 1명은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는 안타까운 보고도 있다. 근본적으로 인간은 관계를 지향하고 코이노니아적이다. 그러나 'With코로나' 속에서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가족도, 믿음만한 이웃도 없어진 상황 속에 하루하루 불안하게 살고 있다. 로버트 니스벳과 같은 사회학자들은 소외가 번져 가는 사회 속에서 유일한 대안은 “작은 규모와 안정된 구조의 공동체”라고 지적한다. 긴 시간 소그룹 사역을 해 오면서 효과적인 소그룹의 인원수는 3명 혹은 4명이 가장 효과적이었다. 그러므로 대그룹과 소그룹 사역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소그룹의 역동성과 구성원들의 친밀감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과 전략만 가지고 있다면 'With코로나' 속에서도 주님의 교회는 영원한 소망의 그루터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 정치

[데일리 오피니언\(한국갤럽\) 제487호\(2022년 3월 3주\) - 대통령 당선인에게 바라는 점](#)

[일본 국민 72% "윤석열 당선에도 한일관계 변하지 않을 것"](#)

연합뉴스\_2022.03.20.

[국민 86% "대장동 재수사 찬성", 71% "586 정치인 퇴장을"](#)

중앙일보\_2022.03.19.

◎ 사회 일반

[결혼해도 애 안 낳아...혼인 대비 출산비도 역대 최저 수준](#)

중앙일보\_2022.03.15.

[작년 혼인 역대 최저...5년만에 20만건대 무너졌다](#)

연합뉴스\_2022.03.17.

[결혼 19만 건 역대 최저...황혼이혼은 10년새 두배](#)

중앙일보\_2022.03.18.

[한국 행복지수 146개국 중 59위...1위 핀란드, 2위 덴마크](#)

연합뉴스\_2022.03.19.

[65세 이상 10명 중 1명 치매...6가지 예방 습관](#)

연합뉴스\_2022.03.21.

[코로나로 비만을 상승...남성 48%, 공연·스포츠 관람 횟수 절반으로](#)

경향신문\_2022.03.15.

[오미크론 확산에 국민 3명 중 1명 "나도 걸릴 가능성 높다"](#)

연합뉴스\_2022.03.21.

[코로나에 '방구석 생활' 2년... 고립·불신속에 살만 지웠다](#)

디지털타임스\_2022.03.15.

[일용직으로 때우고, 성장 꿈도 못꿔... "균형발전 정책 한계"](#)

국민일보\_2022.03.18.

[상위 1% 근로소득자 75%가 수도권 직장...지역 불균형 심각](#)

연합뉴스\_2022.03.21.

[한국인의 커피 사랑...작년 수입액 1조원 첫 돌파](#)

연합뉴스\_2022.03.21.

["집 산 게 죄는 아니잖아"..한국, 주택 보유세 부담 OECD 평균 훌쩍](#)

매일경제\_2022.03.20.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 청소년 / 청년

[걱정·우울감 가장 높은 20대 현재·미래 경제력 평가도 부정적](#)

국민일보\_2022.03.15.

[‘MZ 세대’ 소득·자산 정체 속 빚만 늘어 소비 위축](#)

한겨레\_2022.03.15.

["내 아바타 성폭력 당했어요"...메타버스서도 사이버 성범죄 활개](#)

매일경제\_2022.03.17.

[코로나19 '집콕'에 아이들 똥똥해졌다...남아 비만 2배로](#)

연합뉴스\_2022.03.17.

[대학생 스트레스, 성별·소득·부모 학력 따라 편차](#)

연합뉴스\_2022.03.21.

◎ 기독교 / 종교

[교회교육 "메타버스 활용하되 신중해야"](#)

기독신문\_2022.03.03.

[\[좁인 예수를 플렉스하다\] 청년이여 '믿·자'](#)

국민일보\_2022.03.15.

[이주민 품을 전도자로 제격인데... 외국인 목회자 '차별의 벽'에 눈물](#)

국민일보\_2022.03.16.

[교회 부목사 사택 보유 34%](#)

기독신문\_2022.03.17.

[농산어촌 문제, 고스란히 교회 몫](#)

기독공보\_2022.03.10.

◎ 기획기사 : [20세 전후 첫 투표 유권자 분석] 중앙일보

[1. 집값 잡고 남녀 갈등 해결하고 일자리 늘려라...“개인주의지만 이기적이지 않다”](#) \_2022.03.19.

[2. 이념보다 실용, 포스트 월드컵 세대 났다](#) \_2022.03.19.

[3. 양극화·불평등 심화 시기에 성장...결과보다 공정한 경쟁·기회 원해](#) \_2022.03.19.

[4. 늦게 받고 덜 받기 지지, '세대 공평 연금 개혁'과 맥 닿아](#) \_2022.03.19.

[5. 남성 "한 쪽만 병역의무 불공평" vs 여성 "사회 구조적 차별 남아 있어"](#) \_2022.03.19.

### | 후원 교회 |

강남중앙침례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고현교회, 과천교회, 광림교회, 광주다일교회, 꿈마을엘림교회, 꿈의교회, 노량진교회, 당진동일교회, 대구내일교회, 대전선창교회, 동부광성교회, 동행한빛교회, 둔산성광교회, 마산성산교회, 만나교회, 문호교회, 미디에이터교회, 밀양남부교회, 부천명성교회, 백주년기념교회, 베다니교회, 빛과소금교회, 사랑감리교회, 삼천포교회, 새에덴교회, 서울드림교회, 서울서문교회, 서현교회, 선창교회, 성락성결교회, 소망교회, 송학대교회, 수원북부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신광교회, 안산제일교회, 안성중앙교회, 안양감리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연동교회, 예은교회, 예향교회, 오류동성결교회, 오류교회, 올리브교회, 울림교회, 이룸교회, 일산광림교회, 일산세광교회, 전주기쁨의교회, 제주연동서부교회, 조양중앙교회, 주안장로교회, 중앙성결교회, 지구촌교회, 진주삼일교회, 충신교회, 창동염광교회, 탑동감리교회, 토평교회, 포항대도교회, 포항제일교회, 하나마을교회, 한국중앙교회, 한성교회, 한소망교회(가나다 순)  
천주교수원교구 호계동 성당

### | 후원 기관 |

고려신학대학원,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재)기독교선교해설재단, 기아대책,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마을학연구소, 방과후교회학교, (사)교회갱신협의회, (사)사단법인 아시안미션, 서대문ESF, 서울노회 아동부연합회(예장통합),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예장 통합 목회자 모임), 알파코리아,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장로회신학대학교, 지앤컬리서치, 한국교회탐구센터,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목회, 한빛누리, 한국기부문화연구소, 햇빛회, CBMC 광주지식포럼, CBMC 행복한지회, CCC 사역연구소, GoodTV, IFCJ 가정의 힘(가나다 순)

### | 후원 기업 |

(주)그랑블루, (주)리서치랩, 동광에스아이, (주) 마뜨, 메가리서치, (주)바이텍테크놀로지, (주)삼신테크, (주)셀파 C&C, 스페이스허브, (주)시스코프, (주)자연인(아이소이), (주)참든건강과학, (주)하츠(주)벽산, CNP코퍼레이션 (가나다 순)

### | 후원 개인 |

강영원, 고영관, 고영수, 고인구, 고재환, 고현권, 구봉관, 구영생, 구정오, 금교성, 김관상, 김기혁, 김동하, 김명준, 김상근, 김상래, 김상로, 김석철, 김성열, 김성민, 김성은, 김숙정, 김시은, 김연진, 김영철, 김영훈, 김용섭, 김윤철, 김윤환, 김은선, 김은진, 김재욱, 김주룡, 김주형, 김지한, 김지현, 김현모, 김형태, 김호아, 김홍일, 김흥기, 계만석, 나광균, 남기환, 남성태, 류선자, 류지성, 문성준, 박건호, 박노석, 박명규, 박미경, 박상윤, 박세용, 박영철, 박영호, 박우빈, 박재찬, 박종철, 박종현, 박준상, 박준하, 박지훈, 박진규, 박진철, 박찬주, 박철호, 박현욱, 박형철, 박홍래, 반기민, 반상명, 방승기, 배수정, 백인범, 백인철, 서연우, 서재승, 서해현, 석승호, 석진호, 선원규, 성창민, 송 섭, 송으뜸, 신명자, 신인순, 신지현, 심기식, 안정호, 안태근, 양수민, 엄정석, 여삼열, 오수철, 우애라, 유성민, 유승우, 유형창, 윤동하, 윤여민, 윤영조, 윤치호, 이경만, 이국희, 이광호, 이대식, 이덕희, 이만민, 이미경, 이병희, 이삼열, 이상호, 이성근, 이성수, 이승진, 이승철, 이영선, 이완중, 이요셉, 이윤찬, 이은라, 이인성, 이일영, 이재열, 이정규, 이정아, 이조형, 이주일, 이지형, 이창준, 이창현, 이창형, 이춘봉, 이 현, 이현구, 이현식, 이호택, 이훈희, 이희석, 임성빈, 임현주, 장명희, 장병우, 장부식, 장성진, 장우성, 장재영, 장형철, 전병철, 전용림, 전지영, 정기목, 정부활, 정용철, 정종권, 정종섭, 정 준, 정하규, 정희수, 조병길, 조용민, 조의환, 조준환, 조창오, 주학선, 지용선, 지중배, 진범수, 지현일, 차용현, 천성환, 최명영, 최상도, 최상현, 최용기, 최은아, 최 준, 최준혁, 최태영, 최현갑, 한병록, 한재용, 한진광, 한홍근, 함용태, 호재민, 홍익숙, 홍현풍, 홍혜숙, 황태기, Clara Yoon(가나다순)

### | 후원 방법 |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 계좌 : 국민은행 343601-04-128846 (재)한빛누리(목회데이터연구소)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안내 : 하나은행 203-910046-18604(목회데이터연구소)



## | 미션 |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 | 협력기관 |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 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 | 섬기는 이들 |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신원하 교수 | 연구자문위원장(고려신학대학원 원장)

## | 만든 이들 |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ykji@mhdata.or.kr](mailto:ykji@mhdata.or.kr)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marpro@mhdata.or.kr](mailto:marpro@mhdata.or.kr)

민선영 | 목회데이터연구소 연구원 | [symin83@mhdata.or.kr](mailto:symin83@mhdata.or.kr)

유영민 | 목회데이터연구소 간사 | [mhdata@mhdata.or.kr](mailto:mhdata@mhdata.or.kr)

## | MOU 기관 |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 훈련센터(송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원(고신), 대한예수교 장로회통합 교단총회, 마크로밀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문화선교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사)새길과 새일, 아드폰테스, (사)아시안미션, 크리스찬타임스, 한국IFCJ가정의힘,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